

제 목: 2010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담당부서	건설정책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10월 CBSI 5.9p 상승한 68.5 기록

- 지수 자체는 기준선에 크게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부진, 특히 중소기업체 부진 지속 -

-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5.9p 상승한 68.5를 기록함.
 - 이로써 지수는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8월(50.1)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지수가 지난 4월 수준(70.5)에 근접함.
 - 지난 8월 이후 지수가 2개월 동안 18.4p 상승했는데, 2개월 상승 폭으로는 공공 발주 급증으로 지수가 급상승했던 작년 2~4월(30.0p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임.
 - 이는 건설 비수기인 흑서기를 벗어난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8.29 대책 시행으로 그동안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주택경기 침체가 최악 상황을 지나 다소 개선될 것으로 건설업체들이 기대한 결과로 판단됨.
 - 그러나, 지수 자체가 아직 7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11월 전망치도 75.6으로 기준선(100.0)에 크게 못 미친 것을 볼 때 8.29대책 시행이 지수 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7.1p 상승한 75.6을 기록했는데, 이는 건설기업들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건설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당분간 공공 수주 부진이 지속되고 아파트 미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압박도 지속되는 가운데, 8.29대책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CBSI가 80선을 넘어 기준선에 근접하기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10월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중소기업체는 지수가 도리어 하락해 대조를 이룸.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0.3p 상승한 91.7을 기록함. 지난 7월 50.0을 기록하며 2008년 12월(46.2 기록)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가 지난 2개월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며(41.7p 상승) 올 2월 수준(92.9)을 회복함.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69.2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7월 저점이 대형업체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월인 9월에 이미 69.2를 기록해 지난 3월 수준(70.4)을 회복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중소기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4.4p 하락한 40.4를 기록해 지난 8월의 저점(39.7)에 다시 근접했는데, 이는 3/4분기 들어서도 공공 발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공공 공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소기업체의 특성상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다소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1.0, 102.0을 기록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가 각각 87.0, 78.9를 기록하여 철강재 가격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상황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79.2, 82.1을 기록해 자금관련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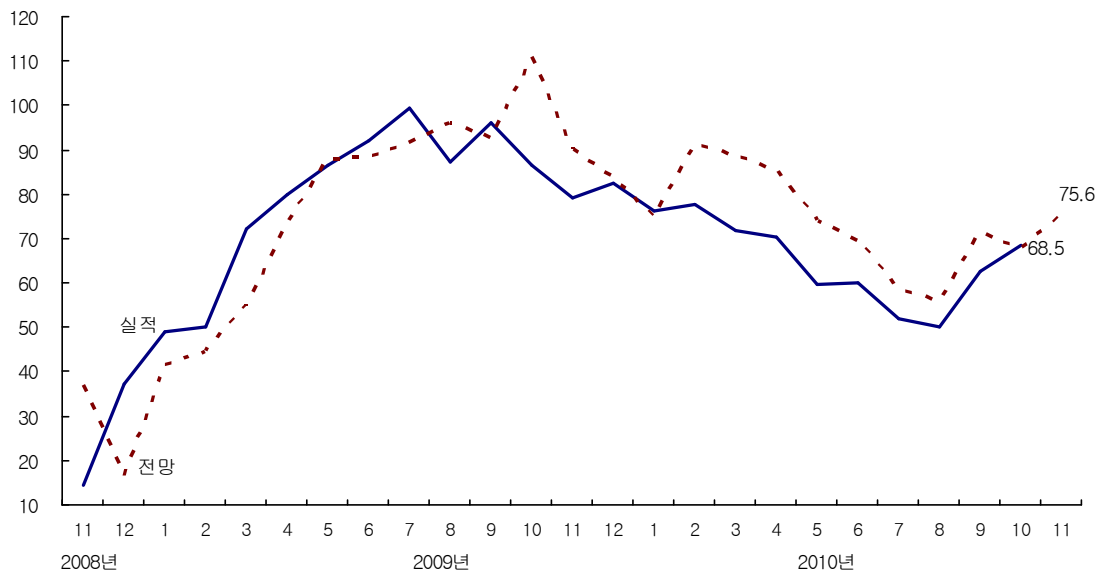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0월 CBSI 5.9p 상승한 68.5 기록

-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5.9p 상승한 68.5를 기록함.
- － 이로써 지수는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8월(50.1)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지수가 지난 4월 수준(70.5)에 근접함.
- － 지난 8월 이후 지수가 2개월 동안 18.4p 상승했는데, 2개월 상승 폭으로는 공공 발주 급증으로 지수가 급상승했던 작년 2~4월(30.0p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임.
- － 이는 건설 비수기인 혹서기를 벗어난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8.29 대책 시행으로 그동안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주택경기 침체가 최악 상황을 지나 다소 개선될 것으로 건설업체들이 기대한 결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 그러나, 지수 자체가 아직 7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11월 전망치도 75.6으로 기준선(100.0)에 크게 못 미친 것을 볼 때 8.29대책 시

행이 지수 회복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7.1p 상승한 75.6을 기록했는데, 이는 건설기업들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건설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을 의미함.
- － 그러나, 당분간 공공 수주 부진이 지속되고 아파트 미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압박도 지속되는 가운데, 8.29대책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CBSI가 80선을 넘어 기준선에 근접하기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10월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중소기업체는 지수가 도리어 하락해 대조를 이룸.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9년 12월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82.5	76.3	77.6	71.7	70.5	59.5	60.1	51.9	50.1	62.6	68.5	67.6	75.6
규모 별	대형	100.0	93.3	92.9	78.6	80.0	64.3	69.2	50.0	50.0	71.4	91.7	71.4	100.0
	중견	77.8	76.9	80.0	70.4	63.0	63.0	57.1	57.1	59.3	69.2	69.2	80.0	76.9
	중소	67.2	55.6	56.9	65.0	67.9	50.0	52.6	48.3	39.7	44.8	40.4	49.1	45.6
지역 별	서울	90.6	85.9	90.1	73.8	74.6	63.5	63.5	54.0	55.0	69.6	84.4	73.5	91.5
	지방	70.2	61.2	59.6	68.4	64.4	53.9	56.9	48.8	42.2	51.7	45.1	58.3	52.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20.3p 상승한 91.7을 기록함. 지난 7월 50.0을 기록하며 2008년 12월(46.2 기록)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대형업체 지수가 지난 2개월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며(41.7p 상승) 을 2월 수준(92.9)을 회복함.
-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69.2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7월 저점이 대형업체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월인 9월에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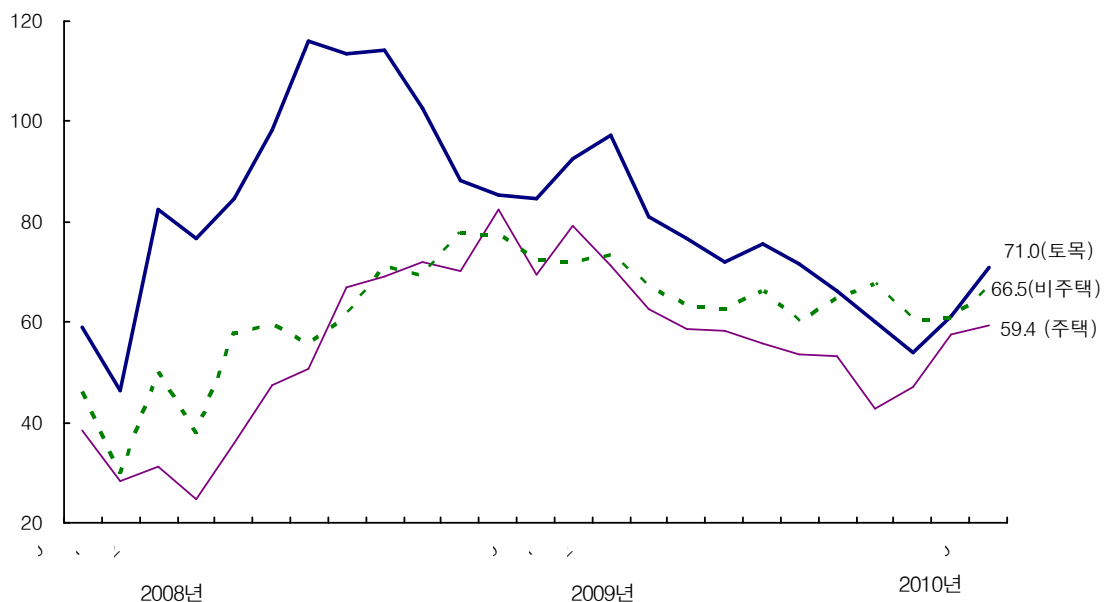
69.2를 기록해 지난 3월 수준(70.4)을 회복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중소기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4.4p 하락한 40.4를 기록해 지난 8월의 저점(39.7)에 다시 근접했는데, 이는 3/4분기 들어서도 공공 발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공공 공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소기업체의 특성상 체감경기가 다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 지수는 서울소재 대형업체의 지수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4.8p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는 전월 보다 6.6p 감소함.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4.8p 증가한 84.4를 기록, 지난 2월 90.1을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80선 이상을 기록함. 전반적인 물량 상황이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서울소재 대형업체의 지수상승으로 높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6.6p 감소한 45.1을 기록, 한달만에 지수가 다시 40선으로 떨어짐.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방소재 중견업체의 물량침체 때문으로, 지방업체의 건설경기가 전월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3.5p 증가한 67.1 기록

- 10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3.5p 증가한 67.1 기록, 지난 9월에 이어 지수가 두달 연속 증가함.
 - － 공종별로는 전월대비 토목물량지수의 증가(+9.8p)가 두드러졌으며,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업체 물량지수의 증가(+11.9p)가 전체 물량지수 증가를 주도하였음.
- 공종별로는 토목이 전월보다 9.8p 증가하고 비주택이 5.7p 증가하는 등 모든 공종에서 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증가하였음.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9.8p 증가한 71.0을 기록, 지난 5월 71.7을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9p 증가한 59.4를 기록함. 지난 9월에는 8.29대책 발표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 폭(+10.6p)이 컸으나, 이번 달에는 공종별로 상승폭이 가장 적었음. 지수가 여전히 50선에 불과해 여전히 타 공종들보다 물량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비주택 물량지수는 올 1월에 66.8을 기록한 이후 10개월 동안 지수가 60선에 머물렀다. 비록 10월 지수가 전월보다 5.7p 증가했으나, 지수 자체는 66.5에 불과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이 83.3, 중건이 72.0, 중소가 43.1을 기록함. 전월 대비 대형업체 지수만이 11.9p 증가하였으며, 중건이 2.1p 감소하고 중소기업 지수는 동일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1.9p 증가한 83.3을 기록, 5개월 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함.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전월 대비 27.4p, 20.3p 증가했으며 주택 물량지수도 전월 대비 3.6p 증가하였음.
 - 중건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1p 감소한 72.0을 기록함.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1p 감소한 반면,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6.5p, 2.5p 증가함.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43.1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 물량지수가 전월보다 1.7p 증가하였으나,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는 각각 6.5p, 2.5p 감소하였음.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67.3	83.3	72.0	43.1	82.2	46.0
	전망	73.7	91.7	76.9	49.1	86.2	55.6
토목	실적	71.0	91.7	72.0	45.8	86.2	49.2
	전망	70.7	83.3	76.0	50.0	78.0	60.2
주택	실적	59.4	75.0	68.0	31.4	73.5	37.7
	전망	65.6	75.0	76.0	42.6	74.4	52.3
비주택	실적	66.5	91.7	69.2	34.0	87.3	36.5
	전망	74.4	100.0	76.9	41.5	94.5	45.3

주 : 실적은 2010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1.3p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의 물량 지수는 6.5p 감소, 서울과 지방간의 양극화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방소재 중건업체의 물량상황이 좋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1.3p 증가한 82.2를 기록함. 서울에 소재한 대형업체의 지수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4월 80.8을 기록한 이후 6개월만에 지수가 80선을 회복함. 공종별로도 모든 공종에서 전월보다 상승하였음.
 - 반면,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6.5 감소한 46.0을 기록, 한달만에 지수가 다시 하락함. 전체지수와는 반대로 공종별로 모든 지수가 전월 대비 감소하였는데 토목에서 4.1p 감소, 주택에서 1.7p 감소, 비주택에서 9.5p 감소하였음.
 - 지방업체 지수가 하락한 것은 결국 지방소재 중견업체의 공사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1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0월 보다 3.5p 증가한 73.7로 10월 보다는 물량상황이 다소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공종별로는 비주택물량의 회복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토목 물량지수는 10월 실적치보다 0.3p 감소한 70.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중견과 중소기업체는 토목물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았지만, 대형업체는 다소 악화 될 것으로 전망함.
 - 주택 물량지수는 10월 실적치보다 6.2p 증가한 65.6으로 전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10월보다 7.9p 증가한 74.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대형과 중견 중소기업체 모두 10월보다 물량상황이 양호해 질 것으로 예측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다소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 어려움 지속,
자금관련 상황도 어려움 지속**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다소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와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1.0, 102.0을 기록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가 각각 87.0, 78.9를 기록하여 철강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상황이 아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79.2, 82.1을 기록해 자금관련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79.2	100.0	69.2	66.1	88.0	66.3
		전망	81.1	100.0	76.9	63.8	89.3	69.1
	자금조달	실적	82.1	100.0	80.8	62.7	94.2	64.6
		전망	81.4	100.0	80.8	60.3	92.4	65.3
인력	수급	실적	101.0	108.3	107.7	84.7	108.1	90.7
		전망	100.9	108.3	107.7	84.5	108.1	90.4
	인건비	실적	87.0	91.7	96.2	71.2	91.9	79.9
		전망	89.2	91.7	100.0	74.1	94.1	82.1
자재	수급	실적	102.0	116.7	96.0	91.5	110.8	88.7
		전망	98.4	108.3	96.2	89.5	105.9	89.0
	비용	실적	78.9	83.3	88.5	62.7	85.2	69.6
		전망	81.6	83.3	92.3	67.2	88.3	71.7

주 : 실적은 2010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